

사회공헌활동이 기업 간 연계 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성과에 미치는 영향

안재현*, 홍석진, 김선욱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환경규제대응실

The Effects of the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on Local Developmental Achievement with a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Firm Connected Activity

Jae-Hyun Ahn*, Seok-Jin Hong, Sun-Wook Kim

Business Service Center for Global Environmental Regulation Industrial Environmental Division,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요약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과 요구가 증대되면서, 사회적 기여를 위한 기업의 활동이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관련 설문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 공헌활동에 대해 국민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과 국민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관점이 다른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사회공헌활동과 성과에 대한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사회공헌활동을 “사회문화적자원 활동”, “사회간접적자원 활동” 및 “경제적자원 활동”총 3가지 요인으로 분류하고, 요인별로 기업 간 연계활동과 지역발전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사회문화적자원’과 ‘사회간접적자원’ 활동은 지역 내 ‘기업 간 연계 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 내 기업 간 연계’ 활동이 활발할수록 ‘지역발전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제적자원’ 활동은 ‘지역발전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사회문화적자원’과 ‘사회간접적자원’ 활동은 지역 내 기업 간의 연계를 통해 ‘지역발전성과’에 간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성과에 대한 연관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제시하였다.

Abstract Due to the growing awareness and deman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 corporate activities designed to make a social contribution are becoming increasingly diversified. Nonetheless, according to a periodic survey, the public has become dissatisfied with the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of domestic corporations. The perceptions of the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of domestic corporations and the public were found to be quite different. In this study, the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were classified into three factors, "Socio-Cultural Resource Activities", "Indirect Social Resource activities" and "Economic Resource Activities", and the effect of each factor on the inter-firm connected activities and achievements of local development were analyzed. Firstly, the "Socio-Cultural Resource Activities" and "Indirect Social Resource Activities" were shown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Inter-firm connected activities in the community. Secondly, it was found that the more active the Inter-firm connected activities were in the community, the bigger their positive effect was on the achievements of local development. Thirdly, the "Economic Resource Activities" were shown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achievement of local development. Fourthly, "Socio-Cultural Resource Activities" and "Indirect Social Resource Activities" were shown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Inter-firm connected activities and an indirect positive effect on the achievement of local development. Based on this research, we quantitatively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rporate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and performance.

Keywords : Achievement of Local Develop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ter-firm Connected Activities,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Social Economy Organization

*Corresponding Author : Jae-Hyun Ahn(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Tel: +82-2-2183-1515 email: khl123@kitech.re.kr

Received November 21, 2017

Revised (1st January 2, 2018, 2nd February 1, 2018)

Accepted February 2, 2018

Published February 28, 2018

1. 서론

보웬의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man, 1953)’ 출간을 계기로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1]. 이는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인지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러한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제품생산, 고용창출 등을 통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왔다[2]. 하지만 현재 세계적으로 기업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환경, 노동, 여성, 인권 등 사회 전 영역으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3].

2010년 11월 초 국제표준화기구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는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 ISO 26000 지침서를 발간하여 모든 기업이 각자 소속된 사회에 옳은 방향의 결정을 내리고, 기업을 경영하도록 하는 활동 표준을 규정하였다. 국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한국표준으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KS A ISO 26000: 2012)’을 제정 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책임경영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으며, 기업을 포함한 모든 조직에 사회적 책임 이행의 의무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4].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세계적인 움직임 속에서 사회적 책임 활동은 투명, 윤리, 환경, 사회공헌활동 등으로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5]. 이 중에서도 사회공헌활동은 기업들의 가장 중점적인 사회적 책임 활동이며, 기업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6].

국내 사회공헌활동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1970년 까지 기업의 주요사회공헌활동은 장학재단 설립을 통한 장학사업이었으며, 1980년대에는 기업재단 설립으로 확대하여 사회공헌에 대한 국내 기업의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초기활동은 대부분 능동적인 사회공헌활동이라기보다는 단순 일회성 기부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기업들은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2000년대부터는 공헌활동을 진화하고자 노력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영역도 단순한 금전적인 지원에서 인적지원까지 확대되

었다[7].

하지만 이러한 기업의 노력에도 국민들이 사회공헌활동에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도 한겨레연구소에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3년마다 수행하는 사회적 책임에 관한 설문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미흡하거나 매우 부족하다고 답하였다. 동일한 내용으로 실시한 2009년과 2012년에도 70% 이상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만족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국민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은 2012년에 비해 7.8% 상승한 49.8%로 나타났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세부 범위를 조사 결과, 인력채용(일자리 창출) 49%, 환경 12%, 교육 9.2%, 사회적 약자 보호 6.4% 순으로 조사되었다[8].

앞서 문현조사를 통해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기업과 국민의 인식차이를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을 총 3가지 요인으로 나누어서 기업 간 연계활동과 지역발전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사회공헌활동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다양한 기업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9]. 또한, 기업이 소비자와의 이해관계를 통해 사회와 의사소통하는 과정이고, 지속적인 활동과 예측 불가능한 사회 문제에 대해 앞장서 해결하고, 사회의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는 활동 등으로 정의하였다[10]. 기업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단순히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아닌 기업경영의 위기관리 측면에서 일종의 보호막 역할이 된다.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정부, 비영리단체 등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얻고 우호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신시장 진입과 개척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11].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지역발전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학계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김주란[12]은 사회공헌활동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업의 활동은 사회 투자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의 참여, 네트워크 구축, 표준 가이드라인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강철희[13]는 사회공헌활동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조직의 규모가 크거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구체적인 동기를 가지며, 사회공헌활동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기업 이미지 향상에 기여한다는 인식과 사회로 지원하려는 경향이 클수록 적극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관심과 이해수준에 따라 활동의 범위가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 협회,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는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해야 타당성과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배현미[14]는 사회공헌활동의 요인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기업의 어떤 사회공헌활동이 지역발전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사회문화자원’은 문화, 예술, 체육진흥활동, 교육 등에 해당되는 요인이며, ‘사회간접적자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의료, 보건 전문서비스 등에 해당되며, 기술발전, 고객서비스, 품질 관리 등은 ‘경제적자원’의 사회공헌활동요인으로 세분화하였다.

2.2 기업 간 연계활동 및 지역발전성과

기업 간의 연계활동은 기업의 역량이 부족할 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의한다. 전략적 연계의 목적을 자원, 산업표준, 규제정보 공유, 신제품개발과 시장진입, 기업의 유연성 확보로 볼 수 있다.[15] 전략적인 연계를 위해서는 양 기업의 업종, 업태, 기업문화가 유사해야 하며, 양 기업 간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협력기업의 경영자원과 역량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16]. 신뢰적 수준은 공간적 범위에 영향을 받으며, 신뢰도가 높을수록 범위가 확대되며, 축적된 신뢰형성이 기업 간 연계를 형성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다른 기업에게 연계기업을 알려 주려는 의지, 충성심, 수행력의 향상을 가져오고 이는 기업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네트워크와 자원 개발 시, 중요한 요소를 지역성의 발전과 활용, 지역사회 특성에 기반을 두려는 노력, 사회적 자본의 유동성,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이 사회신뢰 형성과 사회 문화적 요소와의 결합을 통해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17]. 조직의 자원투입 측면에서 자원기준 접근법에 의해 조직 간 연계를 설명하면 조직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자원

은 조직이 산출물을 내놓을 수 있는 투입요소가 된다. 투입요소의 질적·양적 증대는 산출 증대를 가져온다. 즉 자원의 투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지역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18].

지역발전은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첫째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이다. 지속적으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면 전반적인 소득증가, 환경 개선 등으로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19]. 둘째 세수확대이다. 지역발전에 촉진제가 될 수 있으며, 부유한 재정 상황에서 지역산업은 확대되어 지역발전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20]. 셋째 지역 인지도 향상이다. 인지도가 향상하면, 지역 내 기업의 이미지, 지역 이미지 창출 및 홍보 등 산업적·문화적으로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줄 것이다. 넷째 문화시설 확대이다. 문화시설은 지역과 주민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사적인 소비가 아니라 공적인 문화적 활동을 지원하는 거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문화는 개인의 삶의 질과 지역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기에 지역의 활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문화시설 건립이 중요하다[21]. 다섯째 복지 인프라 구축이다. 지역사회에 공공시설이 확대 될수록 양극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22].

2.3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경제란 이상적 가치나 목적이 사회, 환경 등에 이익을 제공하는 가치 있는 경제적 자산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직화된 경제활동의 영역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23]. 이러한 정의로 나타난 사회적경제 조직의 원리는 사회적 소유, 자본, 목적으로 구분된다. 첫째, 사회적 소유는 사회적경제의 조직적 차원으로, 다양한 사회적 소유권의 참여주의의 모델과 관련된다. 둘째,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경제의 가치적 차원으로서, 사회적 연대의 실현과 사회적 자본의 유입을 의미한다. 셋째, 사회적 목적은 사회적경제의 제도적부분에 해당되며, 대안적인 자원배분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에 요구를 의미한다[24].

Haugh[25]는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양한 역할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및 서비스 공급, 둘째, 지역순환형 경제구조 구축(지역 내 시장활성화와 지역소득의 유출 감소 등), 셋째, 서비스 공급을 통한 생활 개선, 넷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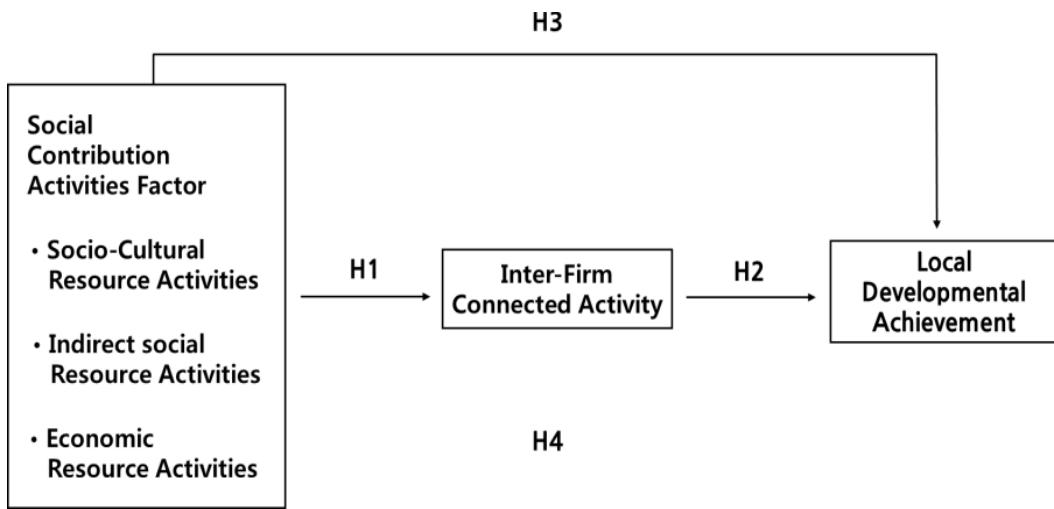


Fig. 1. Analytic Model

지역차원의 참여 민주주의(Local Democracy) 촉진(지역 사회에 대한 주민의 관심 증대), 다섯째, 사회통합에 따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편성 및 확대, 여섯째, 사회서비스 제공에 따른 사회복지예산 절감, 마지막으로 지역 내 개발을 통한 환경 개선과 지역가치 상승 등이 해당한다. 즉,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직·간접적으로 지역 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자본 축적,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다[26].

다양한 문헌조사를 통해 사회공헌활동이 기업 간 연계활동과 지역발전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경기도 성남시에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구축된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판교테크노밸리는 현재 약 1,0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시키고, 향후 제2 판교테크노밸리 구축 예정이다. 이러한 긍정적이 상황 속에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기업 간 연계활동과 지역발전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주목하고자한다. 설문 대상은 지역 내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으로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변인을, 종속변인으로는 지역발전성과 변인을 설계하였으며, 아울러 이를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에 영향을 주는 매개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과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 활동 변인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사회공헌활동 가운데 ‘사회문화적자원 활동(Socio-Cultural Resource Activities)’은 문화, 교육, 기부, 환경, 복지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의미하며, 기업의 ‘사회간접적자원 활동(Indirect Social Resource Activities)’은 의료 등의 전문 서비스, 지역경제 발전 등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자원 활동(Economic Resource Activities)’의 경우 생산성과 기술 발전, 고객서비스와 품질관리, 마케팅을 이용한 공공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의미한다.

3.2 연구가설

3.2.1 사회공헌활동과 기업 간 연계활동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해당 기업이 사회와의 공생적 발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기업은 정부나 시민사회 그리고 다른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사업수행에 대한 허락(license to operate)이 필요하다. 기업은 기업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경영 기법과 전략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핵심적인 구매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을 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에 포함하는 수준의 파트너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회적경제조직과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 활동과는 상호 간에 상관성이 있다 고 유추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계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의 ‘사회문화적자원 활동’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계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의 ‘사회간접적자원 활동’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계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판교테크노밸리의 입주기업의 ‘경제적자원 활동’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계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연계활동과 지역발전성과

기업 간 연계를 통해 연계성과 수익이 창출된다. 지역 사회의 관점에서 기업 간 연계의 목적은 사회의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 간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그 목적이 달성되며, 이 과정에서 지역 사회의 기업 간 연계의 필요성을 상호 간에 인지하게 되고, 지속적인 연계를 유지하며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게 된다[27].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할 때 지역 내 기업 간 연계 활동은 지역발전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계 활동은 지역발전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사회공헌활동과 지역발전성과

입주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여러 지역발전 요인 가운데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의 현대화와 교류촉진, 지역사회 이미지 개선, 사회적 편의시설 개선, 여가 활동의 기회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28]. 입주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예로서, 카지노가 도입된 지역에서는 위락시설의 이용기회를 확대해주었고 나아가서는 카지노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로 인해 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 등 전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29].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할 때,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지역발전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가설 3.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지역발전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의 ‘사회문화적자원 활동’은 지역발전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의 ‘사회간접적자원 활동’은 지역발전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의 ‘경제적자원 활동’은 지역발전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4 사회공헌활동과 지역발전성과의 매개작용

지역 내 기업 간 연계 활동의 경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의 상관성 및 지역발전성과와의 상관성이 있음을 감안할 때, 지역 내 기업 간 연계 활동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지역발전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계 활동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4-1.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의 ‘사회문화적자원 활동’이 지역발전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계 활동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4-2.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의 ‘사회간접적자원 활동’이 지역발전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계 활동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4-3.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의 ‘경제적자원 활동’이 지역발전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계 활동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4. 실증분석

4.1 조사 대상

본 연구의 판교테크노밸리 사회공헌활동이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연계 활동과 지역발전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성남시 내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성남시 내 사회적경제조직은 인증 사회적기업 33개, 예비 사회적기업 20개, 일반 협동조합 123개, 사회적 협동조합 14개, 창업팀 3개, 마을기업 5개로 구성되어 있다. 성남시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 중 본 조사 참여자 83명의 직위는 Table 1과 같다. 일반 직원이 6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매니저급(과장, 차장, 부장) 14.5%, 임원진(경영진) 24.1%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status of survey subjects

Category		Frequency	Ratio(%)
Position	Employee	51	61.4
	Manager	12	14.5
	Executive director	20	24.1
Sum		83	100.0

4.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Brown, T. J. & Dacin, P. A[30], 배현미[14]와 황순철[31]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의 내용 및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에서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13개 요인을 추출하여 연구모형에 반영하였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요인을 따른 총 세 가지로 분류하여 사회공헌활동의 사회문화적자원 요인은 문화 및 예술, 체육진흥, 교육 및 학술지원, 기부금, 환경보존 등으로 구성하였다. 사회문화적자원 요인은 기업의 프로그램 지원활동, 운영비 지원 활동, 전문서비스 활동, 위원 및 자문활동 등을 포함한 활동으로 정의하였으며, 경제적자원 활동은 기업의 경제적 발전활동, 소비자 보호활동, 광고 및 마케팅 활동 등으로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성남시 내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들이 인지하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기업 간 연계활동은 권영빈[27]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의 내용 및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요인을 기업간 물적자원 상호교류, 인적자원의 상호교류, 정보적자원의 상호 교류, 기업간 신뢰 형성, 기업 간 책임감형성으로 설문문항을 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성남시 내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들이 인지하는 기업 간 연계활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성과 요인은 이현기[15], 성신제[16], 홍현미라[17]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의 내용 및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고용창출, 세수확대, 지명도 향상, 문화시설 건립, 복지서비스 향상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을 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성남시 내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들이 인지하는 지역개발성과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해당 기업이 사회와의 공생적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기업은 정부나 시민사회 그리고 다른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사업수행에 대한 허락(license to operate)이 필요하다. 기업은 기업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경영 기법과 전략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핵심적인 구매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을 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 포함하는 수준의 파트너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회적경제 조직과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활동과는 상호 간에 상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업 간 연계를 위해서는 우선 신뢰가 필수조건이며, 이를 통해 연계성과인 수익이 창출된다. 지역사회 의 관점에서 기업 간 연계의 목적은 지역사회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 간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그 목적이 달성되며, 이 과정에서 지역 사회의 기업 간 연계의 필요성을 상호 간에 인지하게 되고, 지속적인 연계를 유지하며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게 된다[27].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할 때 지역 내 기업 간 연계 활동은 지역발전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입주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여러 지역발전 요인 가운데 지역주민들에게 있어 문화의 현대화와 교류촉진, 지역사회의 이미지 개선, 사회적 편의 시설 개선, 여

가 활동의 기회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28]. 입주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예로서, 카지노가 도입된 지역에서는 위락시설의 이용기회를 확대해주었고 나아가서는 카지노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로 인해 지역내 교육환경을 개선 등 전지역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29].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할 때,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지역발전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지역 내 기업 간 연계 활동의 경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의 상관성 및 지역발전 성과와의 상관성이 있음을 감안할 때, 지역 내 기업 간 연계 활동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은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Table 2. Measurement Tools

Variables		Number of Question	Ref.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Factor	Socio-Cultural Resource Activities	7	Brown & Dasin Bae, Hwang(2012)
	Indirect Social Resource Activities	3	
	Economic Resource Activities	3	
Inter-Firm Connected Activity		5	Kwon(2011)
Local Developmental Achievement		5	Lee(1997), Seong(2009), Hong(2005)

본 조사에서는 앞서 기술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총 120부를 배부하여 그 가운데 총 85부가 회수되었으며, 설문지 중 응답내용이 부정확하게 표시된 자료 2부를 제외한 유효 설문지 총 83부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집단은 일반 성남 시민이 아닌 사회공헌활동을 인지하고 있는 성남시 내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인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4.3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4.3.1 신뢰성 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방법으로는 정보의 손실

을 최대한 줄이면서 많은 변수들을 가능한 적은 수의 요인으로 줄이는 데 목적이 있는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였고, 요인회전은 Varimax 방식(직교회전)을 활용하였으며, 요인적재량이 0.4이상인 변수들을 의미 있는 변수로 판단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한 요인들을 구성하고 있는 측정항목들의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신뢰성(reliability)은 측정하려는 변수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다중항목으로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는 경우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다. 먼저 독립변인인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측정항목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요인분석 결과, 사회공헌활동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분산설명비율은 69.171%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요인 1은 ‘사회문화적자원 활동’ 요인으로 분산설명비율 24.046%였으며, 요인 2는 ‘사회간접적 자원 활동’ 요인으로 분산설명비율 22.981%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요인 3은 ‘경제적자원 활동’ 요인으로 분산설명비율 22.144%로 나타났다.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의 ‘사회문화적자원 활동’ 요인들을 구성하고 있는 측정항목들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s α 계수가 ‘사회문화적자원 활동’ 요인은 .820, ‘사회간접적 자원 활동’ 요인은 .828, ‘경제적자원 활동’ 요인은 .829로 각각 나타나 모든 요인의 구성항목들의 내적 일관성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매개변인인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의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계 활동 측정항목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요인분석 결과, 단일요인이 추출되었고, 요인적재량은 모두 0.6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비율은 67.462%였다. 지역 내 기업 간 연계 활동 구성 항목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s α 값은 .828로 높게 나타나 내적일관성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신뢰성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인인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의 지역발전성과 측정항목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요인분석 결과, 단일요인이 추출되었고, 요인적재량은 모두 0.6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설명비율은 60.081%였다. 지역발전성과 구성항목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s α 값은 .829로 높게 나타나 내적일관성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신뢰성이 확인되었다.

Table 3.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Factor Results of validity and reliability of measurement items

	Category	Factor Analysis			cronbach-alpha
		1	2	3	
Socio-Cultural Resource Activities	Social Contribution Activity 1	.854	.039	.198	.820
	Social Contribution Activity 3	.787	.196	.099	
	Social Contribution Activity 2	.737	.480	.136	
	Social Contribution Activity 5	.536	.386	.357	
	Social Contribution Activity 4	.442	.151	.382	
Indirect social Resource Activities	Social Contribution Activity 8	.125	.880	.230	.828
	Social Contribution Activity 9	.307	.834	.115	
	Social Contribution Activity 7	.158	.705	.280	
Economic Resource Activities	Social Contribution Activity 12	.226	.187	.853	.829
	Social Contribution Activity 13	.054	.184	.826	
	Social Contribution Activity 11	.286	.222	.734	
eigen value		2.645	2.528	2.436	
proportion(%)		24.046	22.981	22.144	
cumulative(%)		24.046	47.027	69.171	

Table 4. Inter-Firm Connected Activity Results of validity and reliability of measurement items

	Category	Factor Analysis		cronbach-alpha
		1	2	
Inter-Firm Connected Activity	Inter-Firm Connected Activity 2	.888		.828
	Inter-Firm Connected Activity 1	.857		
	Inter-Firm Connected Activity 4	.833		
	Inter-Firm Connected Activity 3	.828		
	Inter-Firm Connected Activity 5	.686		
eigen value		3.373		
proportion(%)		67.462		
cumulative(%)		67.462		

Table 5. Local Developmental Achievement Results of validity and reliability of measurement items

	Category	Factor Analysis		Cronbach-alpha
		1	2	
Local Developmental Achievement	Local Developmental Achievement 3	.852		.829
	Local Developmental Achievement 5	.802		
	Local Developmental Achievement 2	.778		
	Local Developmental Achievement 4	.753		
	Local Developmental Achievement 1	.680		
eigen value		3.004		
proportion(%)		60.081		
cumulative(%)		60.081		

Table 6. Intervariable correlations

Variables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Factor			Inter-Firm Connected Activity	Local Developmental Achievement
	Socio-Cultural Resource Activities	Indirect Social Resource Activities	Economic Resource Activities		
Socio-Cultural Resource Activities	1				
Indirect social Resource Activities	.576***	1			
Economic Resource Activities	.523***	.484***	1		
Inter-Firm Connected Activity	.480***	.471***	.413***	1	
Local Developmental Achievement	.527***	.495***	.535***	.523***	1

***p<.001

4.3.2 변수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 가설의 검증에 앞서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 활동, 지역발전성과 등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와 같다.

먼저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 활동 변인 간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사회문화적자원 활동’($r=.480$, $p<.001$), ‘사회간접적자원 활동’($r=.471$, $p<.01$), ‘경제적자원 활동’($r=.413$, $p<.001$) 요인은 지역 내 기업 간의 연계 활동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지역발전성과 변인 간에도 ‘사회문화적자원 활동’($r=.527$, $p<.001$) 사회간접적자원 활동’($r=.495$, $p<.001$), ‘경제적자원 활동’($r=.535$, $p<.01$) 요인 모두 지역발전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의 지역 내 기업 간의 연계 활동과 지역발전성과 변인 간에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523$,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결과,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 활동, 지역발전성과 변인 간에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되는 방향성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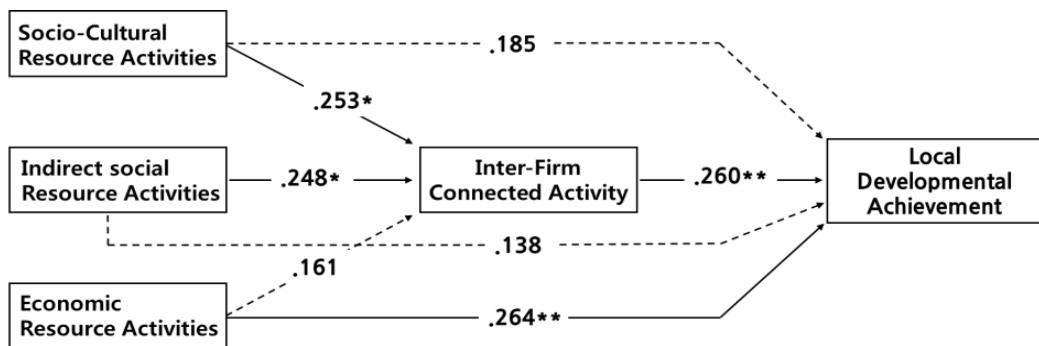
4.4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으로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종속변인으로는 지역발전성과를 설계하였으며, 아울러 사회공헌활동과 지역발전성과

와의 관계에 있어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계 활동을 매개 효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계 활동, 지역발전성과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가설 검증 결과는 Fig. 2와 Table 7에 제시된 다음과 같다.

먼저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요인인 ‘사회문화적자원 활동’, ‘사회간접적자원 활동’, ‘경제적자원 활동’이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계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 연구가설 1의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기업의 ‘사회문화적자원 활동’($\beta=.253$, $t=2.110$, $p<.05$), ‘사회간접적자원 활동’($\beta=.248$, $t=2.121$, $p<.05$) 요인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계 활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적자원활동’ 요인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계 활동에 의미 있는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공헌활동 요인인 ‘사회문화적자원 활동’, ‘사회간접적자원 활동’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계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어 연구가설 1-1, 1-2는 지지되었고, ‘경제적자원 활동’ 1-3은 기각되었다.

다음으로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과 연계 활동은 지역발전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 연구가설 2의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계 활동은 지역발전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beta=.260$, $t=2.626$, $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계 활동은 지역발전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어 연구가설 2는 지지되었다.



* p<.05, **p<.01

Fig. 2. Validation Result of Research Model

Table 7. Research model path factor

Variables	Unstandardized Coefficients(B)	Standardized Coefficients(β)	Standard Error	t.	p
Socio-Cultural Resource Activities → Inter-Firm Connected Activity	.299	.253	.142	2.110	.035*
Indirect Social Resource Activities → Inter-Firm Connected Activity	.229	.248	.108	2.121	.034*
Economic Resource Activities → Inter-Firm Connected Activity	.165	.161	.115	1.441	.150
Inter-Firm Connected Activity → Local Developmental Achievement	.205	.260	.078	2.626	.009**
Socio-Cultural Resource Activities → Local Developmental Achievement	.173	.185	.103	1.679	.093
Indirect Social Resource Activities → Local Developmental Achievement	.101	.138	.079	1.288	.198
Economic Resource Activities → Local Developmental Achievement	.214	.264	.082	2.602	.009**

*p<.05, **p<.01

Table 8. Effects of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in Relation to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and Regional Development

Path	Indirect Effect	95%CI*	p
Socio-Cultural Resource Activities → Inter-Firm Connected Activity → Local Developmental Achievement	.061	(.010 ~ .184)	.039*
Indirect Social Resource Activities → Inter-Firm Connected Activity → Local Developmental Achievement	.057	(.010 ~ .154)	.042*

*Bias-corrected bootstrap

*p<.05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요인인 ‘사회문화적자원 활동’, ‘사회간접적자원 활동’, ‘경제적자원 활동’이 지역발전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 연구가설 3의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적자원 활동’ 요인은 지역발전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beta=.264$, $t=2.602$, $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문화적자원 활동’과 ‘사회간접적자원 활동’ 요인은 지역발전성과에 의미 있는 영향은 미치지 않았

다. 따라서 사회공헌활동 요인인 기업의 ‘경제적자원 활동’은 지역발전성과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어 연구가설 3-3은 지지되었고, 3-1과 3-2는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지역발전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지역 내 기업 간 연계 활동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한 연구가설 4의 검증 결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간접효과에 대

해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부트스트랩핑 방법은 모집단의 분포를 모르는 상태에서 표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수의 분포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CI)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판단한다.

앞서 살펴본 연구가설 1의 검증 결과 사회공헌활동 요인 중 ‘사회문화적자원 활동’, ‘사회간접적자원 활동’ 요인이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계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어, 이들 요인이 지역 내 기업 간의 연계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 내 기업 간의 연계 활동이 지역발전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사회문화적자원 활동 → 지역 내 기업 간 연계 → 지역발전성과 경로의 간접효과(.061)에 대하여 부트스트랩핑을 실시한 결과,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010~.184)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다음으로 사회간접적자원 활동 → 지역 내 기업 간 연계 → 지역발전성과 경로의 간접효과(.057)에 대하여 부트스트랩핑을 실시한 결과,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01 0~.154)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연구가설 4-1과 4-2는 지지되었으나 가설 4-3은 기각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요인 중 ‘사회문화적자원 활동’과 ‘사회간접적자원 활동’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를 통해 지역발전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자원 활동’은 지역발전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사회공헌활동이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과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계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발전성과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요인이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계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사회문화적자원 활동’과 ‘사회간접적자원 활동’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계 활동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교

테크노밸리 내 입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중에 문화, 예술, 체육진흥활동, 교육 활동, 및 의료, 보건, 지역사회를 위한 전문 자문활동 등을 진행할수록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 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연계 활동이 활발해짐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세 번째 요인인 ‘경제적자원 활동’은 연계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과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계 활동이 지역발전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연계 활동은 지역발전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사회적경제조직의 연계 활동이 활발해질수록 고용창출, 지명도향상, 복지 서비스 등의 지역발전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셋째,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지역발전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사회문화적자원 활동’ 및 ‘사회간접적자원 활동’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경제적자원 활동’은 지역발전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요인 중 ‘사회문화적자원 활동’과 ‘사회간접적자원 활동’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연계 활동이 지역발전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접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사회문화적자원 활동’과 ‘사회간접적자원 활동’을 판교테크노밸리 내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면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계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발전성과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계활동과 이에 따른 지역발전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사회공헌활동 요인인 ‘사회문화적자원 활동’ 및 ‘사회간접적자원 활동’을 운영하여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과 연계 활동을 활발히 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경제조직과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이 지속적인 교류를 할수록 지역발전성과는 확대될 것이다.

셋째, 단순 일회성 활동이 아닌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단순 이익만을 추구하는 형태의 경영은 시간이 지날수록 한계가 나타날 것이며,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기업의 대

처가 중요해지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부분인 사회공헌활동은 시대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행할수록 기업의 이미지 및 국민의 잊어버렸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은 기업의 수익증대까지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문제 등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할수록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연계성이 강화될 것이다.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과의 연계활동을 통한 다양한 신규 아이템 발굴 및 신시장 개척 등은 지역사회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업입장에서도 사회공헌활동은 하나의 새로운 기회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우리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해 자료 수집을 하였기 때문에 응답자의 진정성과 성실성에 따라 다른 연구결과가 도출되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인터뷰와 관찰, 기타 관계기관의 보고서 등 복수의 자료수집 방법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남시 내 사회적경제조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서 본 연구의 결과를 확대 해석하여 다른 지역까지 확대 해석하여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후속연구에서는 성남시 외 타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들의 사회공헌활동이 지역 간 연계활동과 발전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발전성과 지표를 일부로 제한하였는데 이를 좀 더 세분화·구체화하여 각 사회공헌활동이 어떤 지역발전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보다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지역발전성과에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역발전성과와 관련된 취약계층 고용창출, 세수확대, 복지시설 등에 대한 항목의 증·감량을 정량적인 수치로 조사하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기여도를 분석하여 사회공헌활동의 중요성을 정량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설문응답자 중 사원의 비중이 높은데, 이것은 응답자가 사회공헌활동, 기업간 연계활동 및 지역발전성과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답변하였을 가능성

이 있고, 현재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설문을 답변할 가능성이 있어 기각된 결과에 대해 중급간부 또는 경영진을 대상으로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K. K. Shin,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in Korea : Finite Kimberly Billary Blue Skies Focused on Blue Paper Cases, The Korea Journal of Advertising, vol. 15, no. 5, pp. 24-38, 2003.
- [2] C. S. Kim, The Effect of Contribution Activity of the Business Corporation,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vol. 2006, pp. 511-525, 2006.
- [3] S. A. Park,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p243, Korean Studies Information, 2007.
- [4] S. B. Choi, and H. S. Park, The Influence of ISO 26000 Implementation on Corporate Image and Purchase Intention : Focusing on Seven Core Subjects and Sustainability Reports, Journal of Product Research, vol. 32, no. 4, pp. 133-134, 2015.
- [5] J. H. Kim, C. Y. Jang, Y. L. Tae, and H. C. Kim, The Types and Processes of Corporate Philanthropy Programs on Forestry in Korea 500 Companies, Journal of Korean Forest Society, vol. 99, no. 6, pp. 816-826, 2010.
- [6] Byung Hoon, Ahn, A Study on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spects of Social Liability Management in Korean Business, p83, Sustainable Industry, Sustainable Korea, 2006.
- [7] Dong Soo, Kim, Publish the social responsibility (CSR) collection of overseas enterprises, p88,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11.
- [8] E. K. Park, Lack of contribution to corporate social contribution, Hankyoreh, c2015[cited 2015 Jun 22], Available From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96917.html. (accessed Nov, 10, 2017)
- [9] W. G. Choi, Research about development of social contribution model for the postal service : focusing on internal perspective of Korea post, Yonsei University, pp. 1-124, 2006.
- [10] H K, Kim, Study on the impact of the perceived Corporate's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on the consumers' re-purchase intens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p. 1-72, 2010.
- [11] S. B. Kwon, The Effect of the Suitability of CSR on the Intrinsic Stakeholder, Sung kyun kwan University, pp. 1-62, 2013.
- [12] J. R. Kim, K. H. Lee, and J. S. Hwang, Effect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s Strategic Activities, Involvement, Message Strategy on the Effectiveness of CSR Communication, Advertising Research, vol. -, no. 85, pp. 229-257, 2010.

- [13] C. H. Kang, M. H. Kim, and S. Y. Heo, An Exploration on the Expansion Plan for Corporate Philanthropy,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2, no. 3, pp. 191-220, 2012.
- [14] H. M. Bae, J. L. Ryee, and S. Y. Woo,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on corporate image and reputation,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vol. 11, no. 3, pp. 868-891, 2007.
- [15] H K. Lee, and H. Y. Chae,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enterprises, *Kyungpook Foreign Language Techno College*, vol. 3, no. -, pp. 243-262, 1997.
- [16] S. J. Sung, and H. Y. Lee, Trust Building Level and Linkage's Spatial Characteristics on Logistics & Storage Industry in the City of Busan,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ol. 12, no. 4, vol. 12, no. 4, pp. 454-476, 2009.
DOI: <http://doi.org/10.23841/egsk.2009.12.4.454>
- [17] H. M. R. Hong, An Exploratory Study on Community Approach Strategies Social Enterprise : Reconstructing Community Social Capital,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vol. 23, no. 2, pp. 135-155, 2008.
- [18] H. C. Lee, And H. B. Park, Social Capital and Rgional Development,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vol. 17, no. 4, pp. 1183-1207, 2005.
- [19] S. J. Lee, J. H. Moon, E. G. Jang, H. S. Park, K. M. Kim, and J. S. Kim, Determinants of Public Conflict Resolution in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vol. 74, no. -, pp. 195-220, 2012.
- [20] S. W. Park, and H. J. Kwon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n the Era of the Globalization and the Capital Region Research, p143,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1998.
- [21] K. H. Nor, A Study on the impact of event satisfaction of visitor on the image as a tourism destination, *Academic Society of Event & Convention*, vol. 2, no. 2, pp. 61-77, 2006.
- [22] T. S. Park, and M. Y. Lee, Accessibility Measure of Cultural Facilities Using Urban Network Analysis, *Korea Society of Civil Engineers*, vol. 35, No2, pp. 455-464, 2015.
- [23] Cliford. A, and Dixon, Sarahh E. A. Green-Works : A Model for Combining Social and Ecological entrepreneurship, in Mair, J., Robinson, J. & Hockerts, K.(eds.), *Social Entrepreneurship*. Palgrave Macmillan, pp. 214-235, 2006.
DOI: https://doi.org/10.1057/9780230625655_14
- [24] W. B. Jang, A Search for Regional Social Economic Movement(Focused on Regional Specialization Project of the National Foundation for Overcoming Unemployment), *Korean Center for Cit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73, no. -, pp. 124-139, 2005.
- [25] Hauge. H, The Role of Social Enterprise in Regional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vol. 2, no. 4, pp. 346-357, 2005.
DOI: <https://doi.org/10.1504/IJESB.2005.007085>
- [26] Y. R. Lee, and M. H. Lee, The Analysis of Network Characteristics of Social Enterprisesand Its Impacts on Local Community(Focusing on Social Venture Valley in Seongsu-dong Area),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vol. 29, no. 2, pp. 161-188, 2017.
- [27] Y. B. Kwon, A study on the Linkage between a social Enterprise and a private Firm in a community, *Universitu of Seoul*, pp. 1-130, 2011
- [28] Johnson. J. D, Snepenser. D. J, and Akis. S, Residents' perceptionsof tourism develop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21, no. 3, pp. 629-642, 1994.
DOI: [https://doi.org/10.1016/0160-7383\(94\)90124-4](https://doi.org/10.1016/0160-7383(94)90124-4)
- [29] K. H. Lee, and Y. C. Song, A Study on the Perceptions of Influence about the CasinoIndustry affect on the Regional Development(With Kangwon Land Case as the Focus),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 23, no. 1, pp. 81-104, 2011.
- [30] Brown, T. J, and Dacin, P. A, The Company and the Product : Corporate Associations and Consumer Product Responses, *Journal of Marketing*, vol. 61, No. 1, pp. 68-84, 1997.
DOI: <https://doi.org/10.2307/1252190>
- [31] Hwang, soon, chul, Study on impact of social contributing activities of corporations on corporation image, intention to purchase and brand image, *hansung University*, pp. 1-94, 2012.
-
- 안재현(Jae-Hyun Ahn)**

[정회원]
- 
 - 2016년 8월 : 건국대학교 환경과학과 대학원 (이학석사)
 - 2013년 3월 ~ 현재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환경규제대응실 연구원
- <관심분야>
기업 사회적 책임, 사회공헌활동, 기업지원 성과, 국제환경규제
-
- 홍석진(Seok-Jin Hong)**

[정회원]
- 
 - 2010년 8월 : 건국대학교 신소대공학과 대학원 (공학박사)
 - 2011년 7월 ~ 현재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환경규제대응실 전문위원
- <관심분야>
기업 사회적 책임, 제품 전과정평가, 물질흐름분석

김 선 육(Sun-Wook Kim)

[정회원]



- 2012년 2월 : 아주대학교 환경공학
과 대학원 (공학석사)
- 2012년 11월 ~ 현재 : 한국생산기
술연구원 환경규제대응실 연구원

<관심분야>

국제환경규제 대응, 국내외 환경산업정책,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 및 CSR, 제품 전과정평가 및 에코디자인